

PI첨단소재 2023년 연간 실적 발표

- 전방산업 수요 감소 및 중화권 수요 회복 지연 영향으로 매출 2,176억원 기록
- EV 배터리 절연용 필름 및 EV바니쉬 중심 비필름 매출 성장세 지속
- 현금 및 현금성자산 564억원으로 2022년말 대비 안정적 증가
- 하반기 성장 회복 및 신규 고객 확보에 따라 2024년 매출 2,700억원 이상, EBITDA 700억원 이상 가이드نس 제시
- 2023년 12월 1일 아케마로 최대주주 변경 완료 이후 내부 통합 절차 순항 중

<2024-02-06>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(PI) 소재 전문기업 PI첨단소재(178920)가 2023년 매출액 2,176억원, EBITDA 253억원, 영업손실 39억원, 순손실 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 글로벌 전방산업 수요 약세 장기화 영향에 전년 대비 매출액은 21.3% 감소했고, 적정 재고 수준 유지를 위한 가동조정 영향으로 가동률은 전년동기 대비 37.2%p 하락한 43.5%를 기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.

용도별로는 FPCB용 매출이 1,05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.6%, 방열시트용 매출은 534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46.5% 하락했다. 첨단산업용 매출은 589억원으로 EV 배터리 절연용 필름과 EV 바니쉬 매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었으나,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1.0% 하락했다. 제품별로는 바니쉬 및 기타 매출이 EV 바니쉬의 연간 최대 매출 경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8.3%로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, 필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2.3% 하락했다.

필름 9호기와 함께 2분기 중 증설이 결정된 EV 바니쉬 설비 투자 소요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했으나, 유동비율 145.7%, 부채비율 64.5%를 기록했고,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말 164억 대비 2023년 말 564억원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했다.

PI첨단소재는 2024년 매출 전년 대비 약 25% 성장한 2,700억원 이상, EBITDA 700억원 이상, 영업이익은 400억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. 이에 대한 근거로 PI첨단소재 관계자는 “2024년은 전방산업 수요가 하반기 중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신규 출시되는 모바일의 판매 호조 전망에 따른 당사 수혜 역시 기대된다.”며, “이러한 영향으로 보유 재고 정상화 및 가동률 상승의 연쇄 효과가 일어남과 더불어 주요 원부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

익성 역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. EV 배터리 절연용 필름과 EV 바니쉬 매출은 고객 확대를 통해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이어온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”고 말했다.

더불어 기존 아시아에 편중된 매출처를 미국 및 유럽 지역으로 확장하고, PI바니쉬 및 파우더 성형품 매출 확대를 통한 비필름 매출 비중 확대와 비모바일 및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집중 전략 추진을 통한 용도 및 제품 다각화를 통해 2028년까지 비모바일 매출 비중 50% 이상, 비필름 매출 비중 20% 이상 달성함과 함께 30% 이상의 EBITDA 이익률을 회복하겠다는 중장기 전략 목표 역시 제시했다.

PI첨단소재 관계자는 “EV 배터리 절연용 필름 전용 생산을 검토 예정인 필름 9호기와 EV 바니쉬 설비는 올해 중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며, 지난 해 완공된 파우더 성형품 설비는 올해부터 제품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. OLED 디스플레이 기판용 바니쉬 역시 상반기 중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, 올 한 해는 비모바일 및 비필름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***자료문의: PI첨단소재 한경완 과장 (02-2181-8635)**